

제 1 교 시



2012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언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육 군 사 관 학 교

이 권

1. (가)~(마)로부터 ‘독서의 방법’을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우물을 파는 사람은 먼저 석 자의 흙을 파서 축축한 기운을 만나게 되면, 또 더 파서 여섯 자 깊이에 이르러 그 탁한 물을 퍼낸다. 또 파서 아홉 자의 샘물에 이르러서야 달고 맑은 물을 길어 낸다.

(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회오리바람이 불고 번개가 팡팡 쳐서 그 형세를 돕는다. 금방 붓도랑은 넘쳐흘러 연못처럼 되니 대단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잠깐 사이에 날이 개어 햇볕이 내리쬐면, 지면은 씻은 듯이 깨끗해지고 땅을 조금만 파 보면 오히려 마른 흙이 보인다.

(다) 푸른 구슬은 꿰어 푸른 꿰미를 만들고, 붉은 구슬은 꿰어 붉은 꿰미를 만든다. 검색과 검은색, 자줏빛과 누런 빛도 색깔 따라 꿰어 상자에 담는다. 이것이 많은 구슬을 옮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다.

(라) 나무 심는 사람은 처음 심을 적에 뿌리와 줄기를 잘 안정시킨다. 이윽고 진액이 돌아가지와 잎이 돌아나, 이에 꽃이 피어난다. 모름지기 꽃이란 갑작스레 얻을 수가 없는 법이다.

(마)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에는 떨어진 이삭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또한 미처 거두지 못한 벼단도 있고, 베어 내지 않은 늦벼도 남아 있다. 따라서 추수 이후에 다시 들판에 나아가 남아 있는 곡식들을 수습하면 좋은 양식이 될 것이다.

- ① (가) : 책을 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깊이 있게 읽어 가면 책의 참 맛을 알게 될 것이다.
- ② (나) :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조금만 지나면 단단한 지식이 쌓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 ③ (다) :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범주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④ (라) : 책을 읽을 때는 조금하계 성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단계 별로 차근차근 읽어야 할 것이다.
- ⑤ (마) : 한 번의 독서로는 책이 가진 정보를 다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듭해서 읽으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보기>는 ‘자원 봉사 활동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I. 자원 봉사 활동의 의의

1. 올바른 인성 함양

2. 결연을 통한 자원 봉사 활동의 지속성 강화 ㉠

II. 자원 봉사 활동의 다변화 요인 ㉡

1. 타율적인 봉사 활동 참여

2.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미흡

3. 일시적인 봉사 활동 참여

III. 자원 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

1. 공동체 의식의 형성 촉진 ㉣

2.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

IV. 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 ㉤

- ① ㉠ :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III’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시킨다.
- ② ㉡ : 하위 항목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자원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으로 수정한다.
- ③ ㉢ : ‘II-1’을 고려하여, 하위 항목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추가한다.
- ④ ㉣ :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 ⑤ ㉤ : 내용이 모호하므로,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로 구체화한다.

3.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었다. 맞는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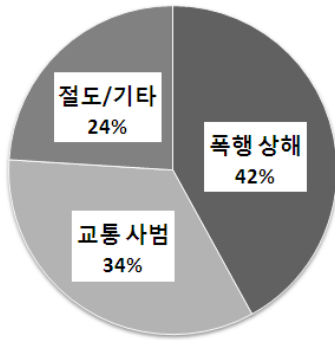
- ① 조리다 : 공포영화는 가슴 조리는 맛으로 본다.
 졸이다 : 고등어는 졸인 것이 맛있다.
- ② 곤욕 : 뜻밖의 손님을 맞아 몹시 곤욕스럽다.
 곤혹 : 그의 말투에 심한 곤혹을 당한 기분입니다.
- ③ 부치다 : 귀농을 하려 해도 부칠 땅이 없다.
 붙이다 : 따귀를 붙이고 보니 손이 다 얼얼했다.
- ④ 돋구다 : 어머니께서 입맛을 돋구는 보약을 지어 보내셨다.
 돋우다 : 시력이 나빠질 경우에는 안경의 도수를 돋워야 한다.
- ⑤ 흘뭇 : 임신하여 흘뭇이 아닌 누나를 보살피는 매형의 정성이 대단하다.
 흘뭇 : 지난 해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이모님은 흘뭇이 되셨다.

4.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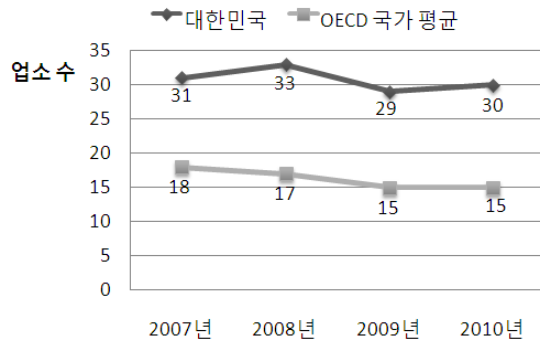
<보 기>

(가) 통계자료

1. 청소년 범죄 유형별 비율



2. 학교 주변 유해 업소 현황



(나) 심의 결과

아동용 만화 프로그램 ○○○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 아동의 올바른 행동 양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심의 규정과 시청 등급을 위반하였음.

(다) 신문 보도 내용

자정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일명 ‘게임 섯다운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그 시행을 위한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라) 연구자료

- 대중매체는 인간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세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 온라인 게임 중독과 청소년의 폭력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임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 ‘(가)-1’과 ‘(라)-2’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폭력 범죄 비율이 높은 것이 온라인 게임 중독과 관련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해야겠어.
- (나)를 활용하여, 아동용 만화 프로그램마저 유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야겠어.
- ‘(가)-2’와 (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야겠어.
- ‘(라)-1’을 활용하여, 대중매체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겠어.
- (다)와 ‘(라)-2’를 활용하여, ‘게임 섯다운제’가 시행되면 온라인 게임 중독 수준과 폭력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떨어질 것임을 강조해야겠어.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을 제 나름대로 설명하고, 그 설명에 기초하여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 사람들은 이처럼 설명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이 같은 설명 행동을 ‘귀인(歸因)’이라고 한다. 귀인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으로 나뉠 수 있다. 내부 귀인은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당사자의 성격이나 능력 등 내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것이며, 외부 귀인은 그 원인을 당사자의 환경이나 상황 등 외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귀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행위자-관찰자 편향 귀인’과 ‘자기 고양 귀인’이 있다. ‘행위자-관찰자 편향 귀인’은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주로 그 사람의 내적인 특성으로 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상황적인 변수들을 더 자주 사용하여 귀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기가 약속에 늦으면 ‘차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약속에 늦으면 ‘책임감이 없어서’라고 내부 귀인을 한다. 동일한 선택과 행동을 하였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이렇듯 다른 설명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내린 자신의 해석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타인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으므로 타인의 행동 그 자체만으로 설명한다. 그 결과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보다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내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같은 편향된 귀인 행위는 집단이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경우에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 귀인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귀인의 동기가 자존감 유지에서 비롯될 경우에는 ‘자기 고양 귀인’을 한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과제를 실패하는 경우나 타인이 성공하는 경우에 우리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귀인을 하는 것이 자존감 유지에 유리하다. 반대로 우리 자신이 성공하거나 타인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내부 귀인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한다. 다음 세 가지는 이러한 ‘자기 고양 귀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들이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과 능력 같은 내적 요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최소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를 할 때, 던지는 방식은 실제 결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숫자를 원할 때는 부드럽게 던지고, 높은 숫자를 원할 때는 강하게 던진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인 사건들은 타인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경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 ②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 ③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설명한다.
- ④ 자존감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도피적 충동을 느낀다.
- ⑤ 타인이 처한 상황과 그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대화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대화 1	남 자 : 전화할 시간이 없었어. 정말이야. 여 자 : 거짓말 마. 넌 내가 싫어진 거야.
대화 2	영 회 : 너 사회심리학 시험을 망쳤다면서? 철 수 : 그건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야.
대화 3	선생님 : 오늘 지각했구나. 넌 정말 게으른 녀석이야. 학 생 : 선생님, 자세한 사정도 모르시면서 너무 해요.
대화 4	엄 마 : 너, 운 좋게 사관학교 합격한 줄 알아! 아 들 : 웬걸요, 제 머리가 좋은 거죠.
대화 5	A국 대표 : 당신들의 공격은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요. B국 대표 : 무슨 소리! 우리는 당신들의 도발에 대해 정당방위를 한 거요.

- ① 대화 1 : ‘남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외부 귀인을 하고, ‘여자’는 ‘남자’의 행위에 대해 내부 귀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대화 2 : ‘철수’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귀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대화 3 : ‘선생님’은 학생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학생’의 행위에 대해 내부 귀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대화 4 : ‘아들’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 내부 귀인을 한 것은 자기 고양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⑤ 대화 5 : 상대국의 행위에 대해 ‘A국 대표’는 외부 귀인을, ‘B국 대표’는 내부 귀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7. <보기>는 한 사회심리학자의 실험 내용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실험 방법] 실험 참여자들을 둘로 나누어, 한 쪽에는 227개의 복권 중에서 한 장씩을 임의로 제공하고, 다른 쪽에는 한 장의 복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복권을 팔 경우 받고 싶은 가격을 적어 내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임의로 복권을 제공 받은 참여자들은 평균 1.96달러를 요구한 반면, 자신이 복권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무려 평균 9달러를 요구하였다.

- ①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된 상황에서는 외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군.
- ②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군.
- ③ 사람들은 통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그 이상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군.
- ④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제한 받는 상황일수록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강하게 드러내는군.
- ⑤ 사람들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수록 ‘행위자-관찰자 편향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군.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 | | |
|-----|---|-------------------------------|-------|
| [A] | [| 새가 나는 바깥에 하늘은 다하건만 | 鳥外天將盡 |
| |] | 근심 곁에 한은 하염없구나. | 愁邊恨不休 |
| [B] | [| 산은 대부분 북쪽에서 굽이쳐 오고 | 山多從北轉 |
| |] | 강은 절로 서쪽을 향해 흘러라. | 江自向西流 |
| [C] | [| 기러기 내려앉은 모래펄은 아스라이 깔렸고 | 鴈下沙汀遠 |
| |] | 배 돌아오는 옛 기슭은 그윽하여라. | 舟回古岸幽 |
| [D] | [| 어느 때에야 세상 그물을 벗어나 | 何時拋世網 |
| |] | 흥을 타고 여기서 다시 노닐 수 있으려나. | 乘興此重遊 |

— 김시습, 「소양정(昭陽亭)」

(나)

천상 백옥경(白玉京)* 십이루 어디메오?
 오색운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죽어져서 억 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의 녀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裏)*의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흘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香案)*전에 지척에 나아 앉아
흥중에 쌓인 말씀 실컷 사뢰리라.
 어와 이 내 몸이 천지 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맑다마는 초객*의 후신(後身)인가 상심도 끝이 없고,
 가태부*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이고.
 형강*은 고향이라 **십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사랑하는 듯 남다른 입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白玉堂)의 꿈조차 향기롭다.
 오색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을 못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혜 추호나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마구 내려
 일모수죽(日暮修竹)에 푸른 옷소매가 차고 얹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천상 백옥경 : 하늘 위의 궁궐.

* 자청전 : 하늘의 신선이 산다는 궁궐.

* 삼청동리 : 신선이 사는 고을 안.

* 옥황 향안 : 옥황상제의 앞에 놓인 상.

* 초객 : 초나라의 굴원을 가리킴. 누명을 쓰고 귀향을 가서 먹라수에 투신함.

* 가태부 : 한나라의 가의를 가리킴. 벼슬에 있을 때 대신들의 시기를 받아 좌천됨.

* 형강 : 중국 형산 근처의 강 이름.

(다)

어느 해인가 내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집 근처에 소나무 네다섯 그루가 있었는데 키가 몇 자 밖에 되지 않고 작달막했다. ㉠ 나뭇가지는 아래로 드리워져 긴 것은 땅바닥에 닿고, 짧은 것은 줄기를 가릴 정도였다. 구부러지고 뒤틀려 엷힌 가지가 마치 뱀이 서리어 다투는 듯, 수레 덮개가 활짝 퍼진 듯, 오색실로 만든 술이 감기고 엷힌 듯, 들쭉날쭉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놀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타고난 성질이 어찌 저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나무의 성질이 본래부터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 나무도 처음에는 산에 있는 여느 나무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랐을 때, 단단해서 잘 휘지 않는 것은 베어 없애고 어려서 부드러운 것은 끌어당겨 구부렸습니 다. 높은 가지는 아래로 당기고, 위로 솟아오르는 가지는 묶어서 늘어뜨리지요. 또 곧은 가지는 구부려서 휘게 하고, 위로 뻗은 가지는 옆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로 오랜 세월 바람과 서리를 맞힙니다. 그러면 줄기와 가지가 변해서 저 나무처럼 특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 가지 끝에서 새로 트면, 위로 향하려는 성질을 잊지 않고 다시 무성하게 곧추섭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가지를 잘라 없애고 구부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기이한 나무가 된 것이니, 이것이 어찌 나무의 본성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면서 말했다.

“저 소나무는 정말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구나. 자기의 선한 본성을 욕심 때문에 잃은 자들을 보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몸놀림은 약삭빠르다. 또 괴이한 행동을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아 칭찬을 받으려고 하며, 남의 비위나 맞추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이를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런 사람을 곧은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 비추어 본다면 어떠하겠는가? 또 ㉣ 굳센 호연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에 비추어 본다면 어떠하겠는가? ㉤ 세상에 아첨하면서 구차하게 남의 환심이나 사려고 하는 자들과 저 작은 소나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아아,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그 나름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자신을 수양하여 본성을 기르고 해를 당하지 않으면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만물도 제 모습을 잃지 않을 것이다.

- 이식, 「왜송설(矮松說)」

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가)와 (나)에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현실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다)에는 모두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얻은 교훈이 제시되어 있다.

9. (가)의 '기러기'와 (나)의 '두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기러기'는 인격이 부여된 대상이고, '두견'은 자연적 배경이다.
- ② '기러기'는 시각적 이미지와, '두견'은 청각적 이미지와 연결된다.
- ③ '기러기'는 화자에게 긍정적 정서를, '두견'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다.
- ④ '기러기'와 '두견'은 모두 화자와 대립하는 존재이다.
- ⑤ '기러기'와 '두견'은 모두 시상의 극적 전환을 유도하는 소재이다.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A]의 '새'는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 보게 하는 소재이다.
- ② [B]의 두 행은 유사한 통사 구조로 대응되고 있다.
- ③ [A]의 '근심'의 원인에 대한 단서를 [D]에서 짐작할 수 있다.
- ④ [B]와 [C]는 모두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B]와 [C]에서는 외부 정경을, [D]에서는 자신을 향해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만분가'는 연산군 4년(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로 인하여 전라도 순천에 유배되었던 조위가 유배지에서 지은 가사이다. 비분(悲憤)의 심정을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하는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 ① '천문 구만리'는 유배지에서 한양까지의 거리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② '흥중에 쌓인 말씀'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죄에 대한 참회를 내포하고 있군.
- ③ '십년을 유락하니'로 보아, 유배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백옥 같은 이 내 마음'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겠군.
- ⑤ 장안에 내린 '무서리'는 화자가 유배된 원인인 무오사화를 말하겠군.

12. ㉠~㉣ 중 <보기>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점)

—<보 기>—

자신의 참모습을 잃고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죽음만 모면했을 뿐이다.

—공자(孔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기 직전, 한 생원은 아버지의 땅을 고을 원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다. 그 후 한 생원은 빚에 쪼들려 나머지 논과 밭갓을 일본인 길천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일본인이 물러가자, 한 생원은 길천에게 팔았던 논을 고스란히 되찾을 줄 알고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놈, 이 불한당놈들, 이 밭갓* 별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 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뻔뻔히 바라다보고 섰다.

“이놈 너루구나?”

한 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별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 듯이 지팡이를 둘러멘다.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촌 농투성이에겐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늪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아니, 이 늪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놈, 내가 왜, 이 밭갓을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여?”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느냐?”

“뉘 밭갓이길래?”

“내 밭갓이다. 한덕문이 밭갓이다, 이놈아.”

“허허, 내 별풀 다 보니. ㉠ 팬시리 술잔 든질렀거들랑, 고히 삭히진 아녀구서, 나이께 먹은 것이, 왜 낚 일하는 데 와서 이 행악야, 행악이. 늪은인 다리뺏다구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구 나구 죽자.”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 야론*지, 내력을 말을 해요.”

“이 밭갓이 그새까진 길천(吉川)이 것이라두, 조선이 독립됐은간 인전 내 것이란 말야, 이놈아.”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이 밭갓이 한덕문이 것이 되는구?”

“길천인, 일인(日人)들은, 땅을 죄다 내놓구 간깐, 그전 임자가 도루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나?”

“오오, 이 녀이 이 밭갓을 전에 길천이한테다 팔았다?”

“그래서.”

“㉡ 그랬으니깐, 일인들이 땅을 다 내놓구 가니깐, 이 녀은 팔았던 땅을 공짜루 도루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개 똥 같은 소리 인전 엔간치 해두구, 어서 없어져 버려요. ㉢ 난 빼것이 길천농장 산림관리인 강태식이한테 시퍼런 돈 이천 환 주구서 계약서 받구 샀어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구 팔구. 돈 내구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구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지?”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잇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符同)이 되어 가지고,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 산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그 뒤 훨씬 지나서 일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생원은 그 논 일곱 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 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 생원으로 보기에 불합리한 처사였다.

한 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구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구 사라구 마련을 했다면서?”

“아직 자세한 모르겠어두,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구들 하드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딴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구?”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흥, 가만 뒤두면 저절루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구, 걸 뺏아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딴단가?”

“한 생원은, 그 논이랑 멧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구 파셨으니깐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 생원 인가요?”

“암만 팔았어두, 길천이가 내놓구 쫓겨 갔을간, 도루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야. 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을 영으루 들어?”

“한 생원한테 뺏은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은 거랍니다.”

“흥, 둘러다 대긴 잘들 허이. 공동묘지 가 보게나. 핑계 없는 무덤 있던가? 저, ㉠ 병신년에 원놈(군수) 김가가 우리 논 열두 마지기 뺏을 제두 핑젠 다 있었드라네.”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렐 하실 게 아니라, 기대리구 있느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않두록 처단을 하겠죠.”

“일없네. ㉡ 난 오늘버튼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삼심육 년두 나라 없이 살아왔으려드냐. 아-니 글썸,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좀 고마운 노릇을 해 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구,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구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아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야?”

그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 독립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 멧갓 :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 산판(山坂).

* 해거 : 괴상하고 알곳은 짓.

* 공수 :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예.

* 야료 :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 댐.

13.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사투리와 구어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발생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1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영남’은 ‘한 생원’의 행위를 술주정 정도로 여기며 알잡아 보고 있다.
- ② ㉡ : ‘영남’은 멧갓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 생원’의 생각에 황당해 하고 있다.
- ③ ㉢ : ‘영남’은 합법적으로 멧갓을 취득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④ ㉣ : ‘한 생원’은 ‘원놈 김가’에게 속아 논을 빼앗긴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⑤ ㉣ : ‘한 생원’은 독립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며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공평한 토지 분배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 ② 해방 전보다 더 무질서한 사회 현실에 울분을 느꼈기 때문에
- ③ 삼강오륜의 유교적 도덕관념이 무너진 현실에 절망했기 때문에
- ④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지도층에 실망했기 때문에
- ⑤ 해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16.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채만식은 해방 이후의 작품에서 해방기의 혼란을 틈타 재빨리 변신을 꾀하는 친일파와 혼탁한 사회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한 민중이 혼탁한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도, 해방의 진정한 의미와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해 무지하고 공동체 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민중의 모습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제도와 민중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① ‘한 생원’은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한 민중의 한 사람이겠군.
- ② ‘길천농장 산림관리인’은 시대의 혼란을 틈타 제 잇속을 챙기는 약삭빠른 인물이라 할 수 있군.
- ③ ‘한 생원’과 ‘영남’의 대화를 통해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한 무지가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독립을 사적인 관점으로만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 생원’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해방기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구장’과 ‘한 생원’의 대립에서, 국가 제도와 민중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상언어가 지니는 특성은 의미론적 측면과 구문론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영상언어는 ㉠ 도상성과 ㉡ 지표성을 지닌다. 도상성은 영상언어가 실제 대상의 외양을 모방해 내는 능력이다. 도상은 영상언어와 대상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성질의 유사성에 의존하는 기호이다. 영상언어는 모두 도상성을 지닌다. 예컨대 초상 사진은 찍힌 사람과 분명한 유사성이 있어 도상성을 갖고 있다.

[A] 그러나 영상언어의 도상성은 단순히 사실의 재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카메라 앵글, 이미지 크기, 조명 등의 ‘영상적 기법’과, 색채, 전체 구성, 추상적 모양 등의 ‘형식적·스타일적 특성’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표현된다. 이미지의 생산자는 영상언어의 도상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기호화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감정을 움직인다. 따라서 영상 이미지는 대상과의 유사성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영상언어의 도상성은 시각과 감정을 연결하는 특성을 지닌다.

영상언어의 지표적 기호는 인과관계에 의존하는 기호로서, 외양의 유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예측되는 기호적 특성을 지닌다.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그 집에 불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연기와 불 사이의 인과관계 때문이다. 영상언어는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문자언어보다 뛰어나다.

영상언어는 문자언어보다 구문론적으로(말하자면 쇼트와 쇼트 사이의 연결 관계의 측면에서) 비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편집 방법으로 몽타주 기법*을 생각할 수 있다. 어린아이, 신발, 나무, 바다의 쇼트(shot)*가 연결된 장면을 떠올려 보라. 이 네 가지 쇼트는 언뜻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소설처럼 네 장면을 문자언어로 묘사한다면, 아마도 “어린아이가 누워 있다. 들판에 떨어진 낡은 신발 한 짝이 있다. 나무가 있다. 바다가 보인다.”라고 서술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 어색한 묘사이기 때문에 독자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화의 장면이라면 자연스럽게 네 가지 이미지가 이어진다. 영상언어는 해독 이전에 느낌과 정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때 의미는 바라보는 관객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해독될 수 있다.

영상언어가 비결정적이라는 점은 바라보는 사람의 참여의 폭을 넓혀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해독의 범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관객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도 영상언어로 표현될 때, 영상언어가 지니고 있는 모호성 혹은 비결정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 몽타주 기법 : 촬영된 쇼트(shot)들을 적절히 끊고 잇는 편집 과정의 조작을 통해 새로운 의미 효과를 만들어 내는 편집 기법.

* 쇼트(shot) : (같은 말) 컷(cut). 촬영의 기본 단위로서,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을 이르는 말.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 가운데는 어떤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직시(直示)라고 한다. 직시는 무엇을 지시하느냐에 따라 담화 직시, 장소 직시, 시간 직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담화 직시란 담화의 어떤 부분을 직접 지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회장은 개인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는 담화에서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이 담화의 한 부분인 ‘개인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이다. 이 경우 ‘그것’이 바로 담화 직시 표현이다.

담화 직시는 시간 직시나 장소 직시에 사용하는 ㉠ 표현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담화가 일련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직시와 마찬가지로 담화 직시에서도 ‘이, 그, 저’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ㄱ) 위에서 우리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ㄴ) 다음 장에서는 발화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ㄷ)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다른 말을 하지는 않겠지?

담화 직시는 (ㄱ)처럼 그것이 지시하는 담화의 부분이 직시 표현에 선행하는 담화일 수도 있고, (ㄴ)처럼 후행하는 담화일 수도 있다. 또한 (ㄷ)처럼 앞뒤의 맥락에 따라 선행이나 후행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담화 직시에 ‘이, 그, 저’가 사용될 경우, (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 자신의 발화에는 근거리 표현인 ‘이’를 사용하고,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발화에는 원거리 표현인 ‘그’나 ‘저’를 사용한다. 이는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담화 직시는 ‘조응(照應)’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담화 직시가 담화 속의 언어적 표현 그 자체를 지시하는데 반하여, 조응은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실체인 ‘지시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ㄷ) A : 차림표에 설렁탕이라고 써 놓았더군.

B : 그래? 그것은 잘못 쓴 것이지?

(ㄹ) 영이는 크고 예쁜 꽃병을 깨뜨렸다. 그것은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ㄷ)의 ‘그것’은 음식 설렁탕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림표에 써 놓은 ‘설렁탕’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지시하기 때문에 담화 직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ㄹ)의 ‘그것’은 ‘크고 예쁜 꽃병’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적 표현의 지시체인 ‘꽃병’ 자체를 지시하기 때문에 조응에 해당한다. 이처럼 조응 표현은 앞에 나온 선행사와 지시 대상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 공지시적(公指示的) 관계에 있다고 한다.

담화 직시와 마찬가지로 조응 표현은, 지시 대상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뒤에 올 수도 있다. (ㄹ)과 같이 선행사가 앞에 오고 그것을 지시하는 조응 표현이 뒤에 오는 조응을 전방 조응이라 하고, 뒤에서 언급할 대상을 앞에서 미리 지시하는 조응 표현을 후방 조응이라 한다.

2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통시적 관점에서 대상의 변천 과정을 제시한다.
- ② 가설을 먼저 제시한 후, 과정에 따라 이를 증명한다.
- ③ 상반된 사례를 토대로,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 ④ 대상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특징을 설명한다.
- ⑤ 대상과 관련한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개념을 도출한다.

22.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가) 여기는 눈이 오는데, 거기는 어떠니?
- (나) 미처 언급하지 못한 내용은 아래 단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다) 그것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에 의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 (라) 골목길에서 그것을 밟을 뻔했어. 길 한 가운데에 소똥이 수북이 있는 거야.

- ① (가)의 ‘여기’와 ‘거기’는 담화의 일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화 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나)에서 ‘아래’는 장소 직시에 사용되는 표현이 담화 직시의 표현으로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다)에서 ‘그것’은 앞뒤의 맥락에 따라 선행하는 담화를 가리킬 수도 있고, 후행하는 담화를 가리킬 수도 있다.
- ④ (다)에서 ‘그것’ 대신에 ‘이것’을 쓰면 발화의 내용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좀 더 가깝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 ⑤ (라)의 ‘그것’은 ‘길 한 가운데에 수북이 있는 소똥’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담화 직시에 해당한다.

23. ㉠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할머니께서 반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야.
- ②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 그래서 관우는 그것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
- ③ 저것 좀 봐. 저 높은 곳에서 지상을 향해 송곳처럼 떨어지는 폭포수를.
- ④ 곧 반장 선거가 있어. 여기에 출마해 볼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 ⑤ 장비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4. ㉡의 ‘으로’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세상이 온통 암흑으로 변했다.
- ② 부모님께 조석으로 문안을 드려라.
- ③ 의사는 내시경으로 질병을 발견했다.
- ④ 그 학생은 계속된 지각으로 엄한 벌을 받았다.
- ⑤ 혜주는 어제 연극 동아리에 새 회원으로 가입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밭가에서

김수영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앓은 석경(石鏡)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나) 대장간의 유희

김광규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㉞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퐁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다) 다리 저는 사람

김기택

핏뭇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앉았다 일어서듯 다리를 구부렸고

그때마다 뒤통은 반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 요란하고 기이한 걸음을

지하철 역사가 적막해지도록 조용하게 걸었다.

어깨에 매달린 가방도

함께 소리 죽여 힘차게 흔들렸다.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어 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데

그 뻑뻑한 기둥 사이를

그만 홀로 팔랑팔랑 지나가고 있었다.

2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모순 어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 ⑤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반복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26.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와 ㉡는 모두 화자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와 ㉡는 모두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대상이다.
- ③ ㉠는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고, ㉡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함축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④ ㉠는 현실의 모순을 심화하는 대상이고, ㉡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⑤ ㉠는 화자의 과거 모습을 상징하고, ㉡는 화자의 미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대상이다.

27. <보기>는 (나)에 나타난 소재와 그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버 스	—	정해진 노선대로만 운행하며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음.
아파트	—	한꺼번에 지어져 집집마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음.
홍은동 사거리	—	과거에 대장간이 있었던 곳
대장간	—	쇠를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때려 연장을 만드는 수작업 공간

- ①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에는 규정된 삶의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군.
- ② ‘아파트’는 차별성이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플라스틱 물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군.
- ③ ‘홍은동 사거리’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사라진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④ ‘대장간’은 다양한 생활 도구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대장간’에서 수많은 담금질을 통해 가치 있는 물건이 만들어지듯이, 화자는 치열한 자기반성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군.

28. <보기>를 참고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영화의 스틸컷(still-cut) 기법을 응용하여, 한 대상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람과 사물들의 시간과 속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시간과 속도가 배제된 대상은 후경화(後景化)되고, 화자가 주목한 대상이 주체로 부각된다. 그래서 독자들은 주체로 부각된 대상의 특정한 모습에 주목하여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된다.

- ① 화자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을 주목하고 있다.
- ② 스틸컷 기법을 적용하여, 흔들리는 ‘온몸’ 대신 ‘뭇 걷는 다리 하나’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 것은, 시간과 속도가 배제된 대상이 후경화된 모습을 나타낸다.
- ④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뻑뻑한 기둥’이 된 적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⑤ ‘홀로 팔랑팔랑 지나가’는 모습은 대상의 특정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충도 깊이 느낀 바 있어 이렇게 말했다.

“나도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지만, 처음에 이 아이를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버려 놓고 지금 다시 데려오면 남들이 나를 비웃지 않겠소. 이 때문에 난처해 하는 중이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걱정이라면 병이 든 척하고 아전의 집에 잠시 머물러 계세요. 제 말대로 하면 우리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도 절대 남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을 거예요.”

최충은 아내의 말을 따랐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영험한 무당이 관아에 온 일이 있었다. 최충의 아내가 자기 옷을 벗어주며 무당의 거처를 묻자 무당은 이렇게 대답했다.

“장끼골 이 첩지 집 앞에 삽니다.”

그 뒤 최충의 아내는 몰래 무당의 집에 사람을 보내 무당을 불렀다. 무당이 오자 아내는 비단 수백 필을 주며 이렇게 부탁했다.

“나를 위해 아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네. ‘너희 사또가 자기 아들을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바닷가에 버리자 하늘이 너희 사또를 미워해서 그 벌로 병이 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빨리 아기를 데려온다면 너희 사또의 병이 금세 나을 것이요, 너희들 역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사또뿐 아니라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리해 주겠나?”

무당이 승낙하여 말했다.

“분부대로 하지요.”

마침내 일어나 나가 최충의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고을 아전들에게 퍼뜨렸다. 아전들은 놀랍고 두려워 최충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집으로 일제히 달려가서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최충이 여종을 시켜 이유를 묻자 아전들이 앞으로 나와 꿇어앉더니 이렇게 아뢰었다.

“저희들이 영험한 무당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 사또가 자기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죄를 얻었다. 지금 빨리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 사또의 병은 절대 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저희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최충이 거짓으로 놀란 척하며 말했다.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하늘의 벌을 받아 병에 걸린 거라면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겠구나.”

그러고는 이적을 아이가 있는 곳으로 보냈다. 이에 이적 일행이 바닷가로 가서 아이를 찾았으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만 돌아가려 하고 있을 때 문득 어린아이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섬을 바라보니 아이가 높은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침내 배를 타고 바위 아래로 다가가 위를 올려다보고 외쳤다.

“아버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도련님을 만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시러 이곳에 왔습니다.”

아이가 말했다.

[A] “나를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이곳에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마음 없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옛날 양적의 큰 장사꾼 여불위는 진나라 왕에게 미녀를 바칠 때 미녀가 자기 아이를 임신한 걸 알면서도 바쳤더랬소. 미녀는 진나라 왕에게 간 지 일곱 달 만에 아이를 낳았으니, 임신한 아이는 사실 여불위의 자식이었던 거요. 하지만 진나라 왕은 차마 그 아이를 버리지 못했소. 하물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임신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문창에 왔고, 얼마 안 되어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으며, 다시 여섯 달이 지나 나를 낳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금돼지의 자식이란 말이요? 만일 내가 금돼지의 자식이라면 내 이목구비가 어찌 금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를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여기에 버렸으니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일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나더러 부모를 찾아뵈라는 것이요? 만일 또다시 나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바다로 뛰어들고 말거요.”

아이는 이때 겨우 세 살이었다. 이적 등이 곧바로 돌아와 최충에게 아이의 말을 자세히 전했다. 최충은 그제야 후회하며 말했다.

“내 잘못이다!”

최충은 고을 사람 수백 명을 거느리고 바다 어귀에 이르러, 아이를 위하여 섬 위에 누각과 정자를 짓고 아이를 불러와 이름을 짓게 했다. 아이는 정자의 이름을 ‘월영’이라 짓고 누각의 이름을 ‘망영’이라 지었다. 최충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리고는 쇠로 만든 지팡이를 아이에게 준 후 돌아갔다.

닷새 뒤 하늘에서 수천 명의 선비가 내려와 월영대에 구름처럼 모이더니 저마다 자신의 학문을 아이에게 앞 다투어 가르쳤다. 아이는 이로 말미암아 글을 크게 깨치고 마침내 문장에 통달하게 되었다.

[중략 줄거리]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중국의 천자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는데, 천자는 재주 있는 두 학사를 신라로 보내 학문의 깊이를 겨루게 한다. 두 학사는 월영대에서 아이를 만나 글재주를 겨룬다.

학사는 시 한 구절을 지어 보였다.

‘삿대는 물결 밑의 달을 꿰뚫고’

아이가 곧바로 이렇게 응대했다.

‘배는 물속의 하늘을 누르네.’

학사가 또 읊었다.

‘물새는 떠올랐다 가라앉고’

아이가 다시 화답했다.

‘산 구름은 끊어졌다 이어지네.’

[B] 학사가 또 아이를 놀려 이렇게 읊었다.

‘새와 쥐는 어이해 짹짹 우나?’

아이가 곧바로 대꾸했다.

‘닭과 개도 또한 멍멍 짹네.’

학사가 말했다.

“개가 멍멍 짹는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닭도 멍멍 짹는단 말이냐?”

아이가 대답했다.

“새가 짹짹 운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쥐도 짹짹 운단 말입니까?”

학사가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못하더니 아이의 재주에 미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나이 아직 일곱 살이 못 된 아이의 재주가 이 정도니 명망 있는 선비들의 글재주는 대체 얼마나 뛰어난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신라에 들어오긴 했으나 어찌 대적하여 글재주를 겨룰 수 있겠소?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소.”

— 작자미상, 「최고운전」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최충은 버린 자식을 데려오기 위해 아내의 계책을 따랐다.
- ② 최충이 보낸 이적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를 설득하려 했다.
- ③ 최충의 부인이 무당에게 시킨 말에 관아의 관리들은 속아 넘어갔다.
- ④ 최충은 아이의 말을 전해 듣고, 자식을 버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 ⑤ 학사들은 월영대에서 만난 아이보다 뛰어난 인물이 신라에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고운전은 기존의 강대한 것과 약소한 것의 관계가 역전되는 모습을 통해, 자아를 억압하는 중세의 부당한 억압과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는 명분, 체면, 신분, 형식 등을 중시하는 중세의 권위주의,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적 질서 등을 거부하는 모습과 함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인 ‘중화주의’를 거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기존의 한문 소설이 대개 사대부적 취향을 담고 있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에는 민중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 ①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이 아이에게 문장을 가르친 것은 강대한 것과 약소한 것의 역전된 관계를 보여주는군.
- ②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꺼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중세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어.
- ③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가부장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어.
- ④ 남편을 자신 때문에 벌어진 상황을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는 인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
- ⑤ 중국의 학사가 신라의 어린 아이를 당하지 못하는 데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인 ‘중화주의’를 거부하고자 했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31. [A]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고 있다.
- ② 요약적 진술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상대의 잘못된 행위를 언급하며 상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 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32. [B]의 상황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군.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로군.
- ③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로군.
- ④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송산이로군.
- ⑤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로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이 생각해 보니 인재를 얻기가 어렵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인재를 다 뽑아 올려도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인데, 하물며 그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은 버리는 것입니까? 온 나라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키우더라도 백성들을 일으키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그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은 내쳐버리는 것입니까? 소민(小民)은 그 버린 자이고, 중인(中人)도 버린 자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개성, 강화도 사람도 버린 자요, 관동과 호남 사람도 반쯤 버린 자요, 서열(庶孽)도 그 버린 자입니다. 복인과 남인은 버린 것은 아니나 버린 사람과 같고, 버리지 않은 사람은 오직 문벌 좋은 수십 집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건에 관련이 되어 버림받은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학문이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원통해 하며 노래나 부르거나 술이나 마시면서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인재가 있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 집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버림받아 마땅하다.” 아, 이것이 어찌 본디부터 그러했겠습니까? 어찌 천지와 산천이 수십 집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기운을 모아 주고 더러운 기운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뿌렸겠습니까?

태어난 곳 때문에 그들을 버리는 것입니까? 김일제*는 휴도에게 태어났으니 서쪽 오랑캐 사람이고, 설인귀*는 북방에서 태어났으니 북쪽 오랑캐 사람이며, 구준*은 경주에서 태어났으니 남쪽 오랑캐 사람입니다. 그 어미의 신분이 천하다 하여 이를 버린다면, 한위공은 청주 관비의 아들이며, 범문정공의 어미는 추잡한 행실이 있었으며, 소강절은 형제 세 사람의 성(姓)이 각각 달랐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서자도 홍문관 관원이 되게 하자는 논의가 때로는 시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었어도 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그들 모두 서자 출신이라면, 이는 서자가 하는 정언(正言)*직을 얻었을 뿐, 진짜 정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리나 품계로 제한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동서남북을 따지지 않고, 멀거나 가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리지 않게 하여 중국과 제도를 같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으며, 올바른 사람은 드물어도 공평치 못한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러한 법은 시행되지 못하고, 시행한다고 해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시행할 만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십 년마다 한 번씩 ‘무재이능과(茂才異能科)’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북 지방과 개성, 강화도의 중인 계층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경전에

① **밝고** 행실이 뛰어나며 학문과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의정부나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사간원의 신하들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지방 수령들도 각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아는 대로 추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백 명 정도를 추천하도록 하여 서울에서 경전이나 시부(詩賦), 논책을 시험합니다.

[A] 이들에게 옛날 나라가 흥하고 망한 자취를 묻고, 지금 나라를 위해 할 일을 물어서 열 명을 뽑아 과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아래로는 사간원이나 홍문관에서부터, 위로는 의정부나 이조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말고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공이 많은 집안과 같이 대우하고 자손들도 대대로 좋은 집안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의 풍속을 고치지 않고도 숨어 있는 인재들을 뽑을 수 있고, 막힌 것을 트이게 할 것입니다.

* 김일제, 설인귀, 구준 : 각각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때 벼슬한 사람.

* 정언 : 사간원에 속한 조선 시대의 정육품 벼슬.

33. 위 글의 글쓴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3점)

— <보 기> —

ㄱ. 설의적 표현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ㄴ.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모순점을 부각한다.
 ㄷ. 기존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ㄹ.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4. 위 글로부터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차별이 심했음에도 문벌 좋은 집 출신자이면 버림 받은 적이 없었다.
- ② 서자 출신을 관직에 등용하는 정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 ③ 당파의 대립으로 인한 폐해가 인재 등용에까지 미쳤다.
- ④ 중국은 인재 등용에 있어서 신분 차별을 하지 않았다.
- ⑤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 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했다.

35. <보기>의 입장에서 [A]에 대해 품을 수 있는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싸움을 결판내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 모자라면 응원할 이를 청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모이면 당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파를 보호하려는 심정은 응원을 구하기 위함이고, 응원을 구하려는 것은 힘을 모으기 위함이며, 힘을 모으려는 심리는 서로 많이 먹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본다면 봉당(朋黨)은 그 출발부터가 너무 비열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① 관직 임명 과정에서 과거 시험의 일반 합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 ② ‘무재이능과’를 십 년마다 설치한다면 제때에 필요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을까?
- ③ 소외된 지역의 낮은 신분 사람 중에 백 명이나 추천할 만한 인재들이 있을까?
- ④ 추천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이 오히려 인재 등용에서 소외될 수 있지 않을까?
- ⑤ 관리들이 사심을 갖고 자기 사람을 편파적으로 추천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36.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2점)

- ① 그 분야는 전망이 밝다.
- ② 그녀는 세상 물정에 밝다.
- ③ 그는 경우가 밝은 사람이다.
- ④ 그의 낮빛이 점점 밝아졌다.
- ⑤ 초저녁부터 달이 휘영청 밝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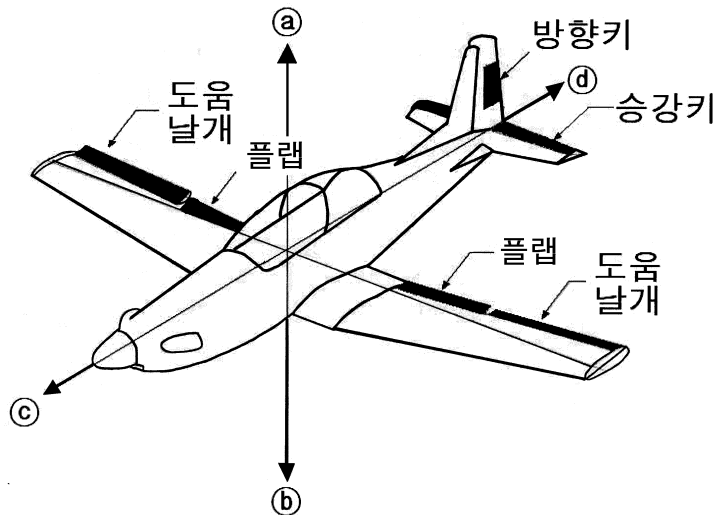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네 가지의 힘이 작용한다. 비행기에는 아래로 향하는 중력과, 위로 향하는 양력이 작용한다. 또한 공기의 저항에 의하여 항력이 발생하며, 그 힘을 이기고 비행기를 전진하게 하는 추력이 엔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네 가지 힘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행기가 안정을 이루며 비행할 수 있으며,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비행기는 상승 또는 하강하거나, 가속 또는 감속한다.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날아 오르기 위해서는 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력 발생은 베르누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베르누이의 원리는 공기(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고, 반대로 공기(유체)의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원리이다. 날개의 단면을 보면 ㉠ 윗면의 길이가 아랫면의 길이보다 길다. 이러한 모양의 날개가 앞으로 진행할 경우, 같은 시간에 더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윗면의 공기가 더 빨리 움직인다. 그 결과 아랫면을 지나는 공기보다 윗면을 지나는 공기의 속도가 더 빨라져서 압력이 낮아진다. 이때 날개 아랫면의 높아진 압력과 윗면의 낮아진 압력 사이의 차이만큼 위로 향하는 힘, 곧 양력이 생긴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조종면(control surface)이라고 한다. 비행기의 조종면으로는 몸통의 주 날개 끝에 위치한 도움날개(aileron), 비행기 뒤쪽의 꼬리날개의 수평안정판에 달린 승강기(elevator)와 수직안정판에 달린 방향키(rudder)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종사의 의도대로 조작하는 장치로 조종간과 페달이 있다. 조종사의 조작에 따라 날개 뒷부분에 부착된 조종면이 꺾이며 날개의 형태가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양력이 변화한다. 조종면 외에도 플랩(flap)이 있다. 이는 날개의 안쪽에 위치하며, 속도가 낮은 이착륙 시 날개의 양력을 증가시켜 주는 고(高)양력 장치이다.

조종사가 비행기의 기수를 올리기 위해 조종간을 뒤로 당겨 승강기를 위로 꺾으면, 수평안정판에는 아랫방향으로 힘이 발생하여 비행기 앞부분이 들리게 된다. 또 비행기를 좌우로 기울게 하려면 좌우 도움날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도움날개가 내려간 쪽의 양력은 증가하고 도움날개가 올라간 쪽의 양력은 감소하므로, 비행기 좌우 날개의 양력이 이루는 평형이 깨지면서 비행기가 기울어진다. 예를 들어,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 날개에서는 아래쪽으로, 왼쪽 날개에서는 위쪽으로 힘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기운다. 방향키의 경우는 조종사가 발로 페달을 밀어 조종한다. 오른쪽 페달을 밀면 방향키가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므로 수직 꼬리날개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여 기수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주요 부분의 명칭>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을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설명한다.
- ② 조종 방식을 중심으로 비행기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 ③ 비행의 과학적 원리와 비행기 조종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④ 현재 사용 중인 비행기의 종류를 구조에 따라 나누어 설명한다.
- ⑤ 새로운 조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비행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단한다.


38. 위 글에 제시된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양력, ㉡는 중력, ㉢는 추력, ㉣는 항력에 해당한다.
- ② ㉠>㉡,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행기가 앞으로 날 수 있다.
- ③ ㉠~㉣의 균형이 깨질 때 비행기는 상하로 움직이거나 속도가 변화한다.
- ④ ㉠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날개 아랫면의 공기압이 윗면보다 높아야 한다.
- ⑤ ㉠와 ㉡는 비행기 자체에서 발생하고, ㉢와 ㉣는 자연적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39. <보기>의 비행을 위한 조종면의 작동 방향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3점)

— <보 기> —

오른쪽 그림은 정면 방향으로 수평 비행을 하던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왼쪽 위 방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좌측 도움날개	우측 도움날개	승강기	방향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40. <보기>를 참조할 때, ㉠과 성격이 동일한 것은? (3점)

— <보 기> —

㉠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과 뒷말 사이에서 ‘ㄴ’ 소리가 한 번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 ① 잇몸
- ② 햇수
- ③ 제삿날
- ④ 예삿일
- ⑤ 전셋집